

2022년 1월 두 번째 토요일

## 우스운 사랑

안녕하세요. 규식입니다.

제 글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벤트

그동안 좋은 의견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이벤트 하나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구독자 분들 중 한 분을 대상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선물은 비밀입니다. 선물의 정체는 철저히 '보안 등급 1급'에 준하여 기밀로 다룰 예정입니다.

### #이벤트 참여

- 1월의 글 중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를 골라서 인스타그램 스토리 업로드 (필사 타이핑 둘 다 좋습니다.)
-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 'plantstar\_n.612'를 태그해주시면 됩니다.
- '1월의 글' 중 고르는 것이므로, 1월 31일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1월 두 번째 토요일 - ‘우스운 사랑’

- 2021. 01. 08. 엄규식

1월, 나는 전라남도 군산을 방문했다. 종종 들렀던 곳이긴 했지만, 이렇게 군산 곳곳을 여행하는 건 처음이었다. 어딜 갈지 이곳저곳 찾아보다가, 군산에 채만식 문학관이 있다는 걸 알고 곧장 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학관(文學館). 그곳이야말로 문자의 사원이 아닐까. 선비들이 선대 유학자들의 제사를 지내듯, 문학가들을 기리는 곳. 독자들이 작가라는 존재를, 텍스트 저편에서 만나는 곳. 성인(聖人)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가 자라온 환경을, 그가 문학사에 남긴 족적을, 그가 겪은 이런저런 일들을 살살이 조망할 수 있게끔 하는 장소.

나는 그런 기대를 품고 채만식 문학관 문을 열어젖혔다. 그곳에는 채만식의 작품 이름들과 설명이 빼곡이 적혀 있었다. 육필원고도 있었고, 몇몇 장의 사진도 있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부실했고, 공허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내 눈길을 끌 만한 것이 일절 없었다. 실로 속 빈 강정이었다.

1층 전시관 가운데에는 한국 근현대 작가들의 출신지가 적혀 있는 지도가 전시되어 있었다. 박경리, 서정주, 이상, 최인훈. 이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 듯한 근현대 한국 문학을 빚냈던 작가들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고, 그들의 고향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다. 흥미로웠지만, 그것은 ‘채만식 문학관’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 지도가, 왜 하필 그 자리에 있어야 했을까. 채만식 문학의 깊이가 다른 작가들의 이름을 빌려와야 할 만큼 얕았을까. 아니면 채만식이라는 문학가가 구태여 그런 지도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내세울 작품이 없는 위인일까. 그 지도는 크기가 매우 컸는데, 오히려 그 거대함은 전시관을 더욱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내가 가장 큰 충격을 느꼈던 건,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에서였다. 그곳에는 여러 시들이 걸려 있었다. 이방원의 ‘하여가’, 김춘수의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같은 시들이었다. 언제 어디서 읽어도 아름다운 시들이었다. 2022년 1월 8일, 채만식 문학관에서도, 그 시들은 여전히 고고하고, 운치 있어 보였다. 그러나 그 시들이 채만식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물음에는 가우뚱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들. 문학 사조부터 다를뿐더러, 작가와도, 시대와도 어떤 교집합도 갖지 못하는 작품들. 상호텍스트성은 0에 수렴할 것이다.

나는 큐레이터가 아닐뿐더러, 얕은 지식조차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전시(展示) 기획은 내게 무척이나 생소한 것이다. 전시물이 적재적소에 놓였는지, 전시 기획이 잘 되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영 켜병이다. 누군가가 '그럼 어떻게 전시를 해야 문학관다운 문학관이 되느냐, 문학관 수준에 걸맞은 전시는 뭐냐', 하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다. 그 방면에 도통 아는 게 없으니. 아주 철저하게 무식한 셈이다. 그런 나의 눈에도, 채만식 문학관은 어딘가 단단히 잘못되어 보였다.

고등학생 때, 춘천의 '김유정 문학촌'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은 적어도 한 작가를 기리는 공간이라 말할 수 있는 곳이었다. 또렷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갔다온 후의 느낌은 잊히지 않았다.

그에 반해, 채만식 문학관은 실망스러웠다. 채만식이라는 작가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단순히 그 정보를 나열하기만 했을 뿐, 대중들에게 그를 어떻게 알리겠노라, 하는 전시 기획 의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처음에 나는 채만식 문학관을 그저 채만식 관련한 것들의 총합이라 생각했다. 이렇다 할 전시물이 충분치 않으니, 이것저것 끌어모아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그런데 그마저도 아니었다. 최소한의 연결고리마저 없는 것들까지 탐욕스럽게 포섭망 안으로 빨아들이고 있었다. 도대체가 '하여가'와 채만식 문학의 연결점은 어디쯤일까. 몇백 년 간의 시대 차이, 고전 시가와 현대 소설, 심지어는 주제 의식마저 도무지 겹치는 부분이 없었다. 둘을 엮어낼 수 있는 가장 좁은 분류망을 들고 온다면, 그 망의 이름은 '한국 문학'이 될 것이다.

채만식 문학관이 보여준 건, 우스운 사랑이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채만식 문학관에 어울리는 것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하지 않고, 작품들을 마구잡이로 옥여넣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도 없이. 그렇게 하면, 문학관의 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믿듯. 그건 전시관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뒤죽박죽 섞인 전시물 가운데에서, 작가를 느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양을 무한정 늘리면, 질도 따라오리라 생각했겠지만, 수집에 대한 유난한 기갈은 그곳을 더욱더 저급하게 만들었다.

이 자료 저 자료 가리지 않고 모으고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한 사랑이 필요할 것이다. 자신과 상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을 하면서, 그 대상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무조건 희생하고 불태워가며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불똥을 남에게 튀기는 사람도 있다. 어찌됐든 이들 모두 사랑을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별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 없는 사랑은 위험하다. 그런 무식한 사랑은, 사랑만이 가질 수 있는 품위를 떨어내고 우스운 무언가로 탈바꿈하게 된다.

우스운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도 우스운 것으로 격하시킨다. 난 채만식 문학관에서 쓸쓸함을 느끼며 섬세하지 않은 사랑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사랑의 실천은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열정만으로 부모의 병을 낫게 하고, 자식의 됴됨이를 올곧게 하고, 조국의 번영을 기약할 수는 없다. 사랑이 바라는 궁극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외로 냉정한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라는 말은 사랑에 필요한 냉정함을 강조한 속담이다. 우리말 사랑이나 그 실천으로서의 국어 순화 운동도 마찬가지다. 우리말에 대한 열정적 사랑이 물론 바탕이 되어야겠지만, 그와 아울러 냉정한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막연하게 우리말이 최고라 여기는 것이나 옹졸한 국수주의가 국어에 대한 지순한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은 지혜로운 사랑의 방식이 아니다.

- 이남호, 「국어 순화는 국어 풍요가 되어야 한다」, 『새국어생활』, 15(1), 2005, 90쪽.

## 글 제목에 관한 이야기

글 제목을, 밀란 쿤데라의 작품 이름에서 따왔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제목이 좋을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 글부터 마무리짓기로 했는데 글 후반부에서 ‘우스운 사랑’이라는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날 했던 생각을 잘 표현해준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음에 들어서 제목으로 점찍어뒀습니다.

웬지 그런 제목의 작품이 꼭 있을 것만 같아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우스운 사랑들』이라는 작품이 있는 거예요. 밀란 쿤데라 단편집이더군요. 글을 쓰다가 또다른 글을 알게 된 기분이라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연의 일치로, 대작가의 작품을 알게 되어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꼭 읽어 보려고요.

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문제 작가 밀란 쿤데라의 유일한 단편집인 『우스운 사랑들』은 프랑스에서 1968년 출간된 비교적 초기 작품으로, 『농담』(1967) 다음에 출간되었지만 실은 정식 등단 전 처음으로 썼던 산문들의 모음이다. 초기 작품 다운 거침, 생생한 재치와 유머, 과감함이 잘 드러나 있으며 쿤데라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자 쿤데라 문학의 근간을 이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중략) ...

이처럼 극한 상황이나 함정에 빠짐으로써 몰랐던,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 그 속에 놓인 ‘사랑들’을 통해 등장인물들은 과연 ‘삶’이란 무엇인지,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스운 것인지, 이 유머는 왜 나와 사회를 이토록 괴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모순에 대한 비판이야말로 쿤데라 문학의 줄기로, 과연 이 단편집이 쿤데라 문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점이다.